

# 김재열 ISU 회장 IOC위원 당선 ... 한국인 12번째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 겸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이 역대 12번째 한국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됐다.

김 회장은 16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IOC 141차 총회의 신규 위원 선출 투표에서 유효표 73표 중 72표를 받아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됐다. 이로써 김 회장은 한국인으로는 12번째로 IOC 위원이 됐다. 특히 삼성그룹 고 이견희 회장의 사위인 김 회장은 삼성가의 대를 이어 IOC에 입성하게 됐다.



▲ 김재열 ISU 회장. 사진=ISU

장에 선출된 뒤 1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IOC 위원이 됐다.

김 회장의 선출로 한국인 현역 IOC 위원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 그리고 김 회장 등 총 3명으로 늘었다. 고 김운용, 고 이견희, 박용성 위원이 동시에 IOC 위원으로 활동했던 2002~2005년 이래 18년 만에 IOC 위원 3명을 동시에 보유하게 됐다. 유승민 위원의 임기는 2024년 파리 올림픽 때까지고, 이기흥 위원의 임기는 IOC의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2년 남았다. 총 107명의 IOC 위원 중 프랑스가 4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과 중국, 일본,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이상 3명)이 두 번째로 많다.

2010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국제부회장을 맡아 체육계와 인연을 맺은 김 회장은 지난해 6월 ISU 총회에서 연맹 창설 130년 만에 비유럽인으로는 처음으로 회

# NBA 스타 커리, '찰리 시퍼드상' 받는다



▲ 열렬한 골프광인 스테픈 커리. 사진=AFPBBNews

미국프로농구(NBA) '슈퍼스타' 스테픈 커리(35·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농구가 아닌 다른 스포츠에서 상을 받는다. 그는 세계골프 명예의전당이 수여하는 '찰리 시퍼드' 상의 영예를 안았다.

18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세계골프 명예의전당은 이날 골프의 다양성을 증진한 공로로 커리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시상식은 제124회 US오픈 챔피언십 기간인 내년 6월10일 노스캐롤라이나의 파인 허스트에서 열린다.

열렬한 '골프광'인 커리는 2019년 워싱턴의 흑인 대학인 하워드 대학에 6년 동안 남성과 여성 골프 프로그램을 후원하기 위해 많은 기부를 했다. 2021년부터는 열악한 환경의 어린 선수들이 골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커리는 성명을 통해 "찰리 시퍼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면서 "열정과 헌신, 결단력을 가진 젊은 골퍼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골프가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커리의 골프 사랑은 유명하다. 커리는 지난 7월 미국 유명인사들이 출전하는 아메리칸 센추리 챔피언십에 출전, 출신원을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찰리 시퍼드 상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멤버가 된 찰리 시퍼드(1922~2015)를 기리기 위해 2021년 만들어졌다.

# 야구, 2028 LA 올림픽 정식종목 복귀

야구의 올림픽 복귀가 확정됐다.

17일 '스포츠타임스'에 따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전날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141차 총회에서 2028 LA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제안하고, IOC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5개 신규 종목 추가를 압도적인 표로 가결했다.



▲ 2020 도쿄 올림픽 야구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일본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야구·소프트볼, 스쿼시, 플레그 풋볼, 크리켓, 라크로스 5개 종목의 2028 LA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에 반대한 IOC 위원은 투표 참가자 9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이로써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열리고,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빠진 야구는 7년 만에 올림픽 무대로 돌아온다.

2028 LA 올림픽이 야구 종가를 자부하는 미국에서 열리는 점을 고려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 선수들이 자국 대표로 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벌써 많은 관심을 끈다. 그간 MLB 사무국은 정규 시즌 중에 열리는 올림픽에 메이저리거의 출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IOC 총회는 또 근대5종과 역도의 LA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도 승인했다.

앞서 IOC 집행위원회는 국제근대5종연맹이 승마 종목을 장애물 레이스로 교체해 비용 인하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세계역도연맹은 도핑 관리를 독립기관인 국제검사기구(ITA)에 위임하는 등 변화를 추구했다며 두 종목의 2028 LA 올림픽 정식 종목 포함 의견을 총회에 부쳤다.

# 한국 전통 대낚시 <sup>☆</sup> 무료교육

## • 미국에서도 낚시를 배우실 분 모집합니다 •

\* 개인이 무료교육 봉사합니다.

• 초보자 환영 / 주말에 같이 출조하실 분

• 캠핑 낚시 / 벙에돔 바다 낚시

• 낚시에 관한 모든 교육

<이메일 문의하세요>

abocado3228@naver.com

